



# “말법시대 묘법 전하고파”

### 108폭 법화경 병풍제작 이요환씨

#### 매일 8시간씩 1년작업 ‘회향’ 길이 55미터 세계최장 경전병풍

“제가 있는 불자들은 일념으로 정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법화경병풍도 수행정진의 일환으로 여기고 내가 익힌 서법(書法)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주에 사는 중견서예가 이요환씨(50)가 법화삼부경 총 8만4천여자를 108폭 병풍으로 만들어 화제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처님오

신날 법화경 서예병풍을 발원, 1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최근 완성하고 표구 제작에 들어갔다. 한폭에 680자가 들어간 이 병풍은 <묘법연화경> 6만9천7백여자와 <무량수정> <관보현경>까지 법화삼부경 총 8만4천여자를 경면주사를 이용, 해서체 소자(小字)로 썼다.

“매일 아침 새벽, 마치고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듯 참선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법화경을 여러번 소리내 읽으며 부처님과 한몸이 되기를 바라며 경건한 자세를 갖추어 기도하듯 한자한자 썼습니다.”

하루 8시간씩 작업했다는 이씨의 <법화경> 병풍은 그 글씨가 단아하면서도 수려하다. 법화경 병풍은 팔천을 넘는 길이는 무려 55m로 세계 최장의 불경병풍이 될 전망이다.

서예 경력 35년으로 그간 초대전 이경숙 작가

## 경주 남산 ‘마애여래입상’ 발견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마애여래입상이 경주남산에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산 문화유적 분포도를 만들고 있는 신라문화동인회 송재중씨(50·신라중 교사)는 최근 경

주시 배동 서남산 선방굴 정상부근에서 기동묘양의 자연암석에 선각된 불상(높이 2.08m)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북쪽 경주시가를 굽어보도록 배치돼 있는 이 불상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마멸돼 얼굴부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머리에 육계를 비롯 두광, 신광, 연화대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송씨는 “등산로 바로 옆 바위인데도 바위자체의 그늘로 인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세밀하고 부드러운 옷주름이나 구도로 봐서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 문화유적 재정비작업 ‘열기’

### 경주남산살리기등 5개년계획 수립

문화체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절된 역사와 문화를 잇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부턴 제2차 5개년 문화유적 정비계획을 수립, 2002년까지 신라 백제 중원 등 7개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유적 정비 및 보수에 들어간다.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역사상·학술상 또는 지정학상으로 공공적인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 권역을 1개의 문화권으로 묶어 동 권역에 있는 주요 유적을 체계적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많은 불교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신라문화권은 총 3백17여원

을 들어 사찰터 석탑 왕릉 등이 있는 황룡사지와 경주 남산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황룡사지 정비에는 92억8천만원, 경주남산에는 60억원이 배정됐다.

부여 공주 익산 논산 등 중원으로 한 백제문화권은 정림사지, 마곡사지 석탑, 관촉사 등의 정비에 105억을 배정하는 등 총 463억으로 중요유적을 지속적으로 복원 정비한다. 남한강 주변에 많은 불적을 가지고 있는 중원문화권은 1백48억원을 들여 법천사지·거둔사지(사적 168호) 등 6건의 문화유적을 정비 복원한다.

충북 충주시는 고려초의 석굴사

원으로 알려져 있는 미륵리사지(사적 317호)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02년까지 총 56억원을 들여 석실복원과 유물전시관 건립은 물론 조경시설도 갖춰 역사적인 문화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2억4백여원을 들여 3층석탑 주변 석축12m 등 1백m가량의 석축을 정비하고 석실은 해체복원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7천7백여㎡를 매입, 안내관 설치, 유물전시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이다.

전남 광양시는 신라말의 고승 도선국사가 입적한 율동사지를 발굴, 복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6천만원을 들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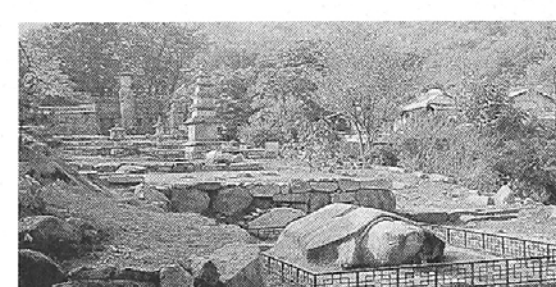
## 한수문화재 불 기획 은석고미술관 개관 전시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두차례 역임한 신기환씨(78)는 최근 종로구 연지동 은석빌딩에 은석고미술전시관(90평)을 마련, 7일까지 개관기념전 ‘해의한수문화재 명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고려때 작품으로 추정되는 금동보살좌상을 비롯 청자 백자 연적 등 미공개 문화재 도자기 1백20점의 고미술품을 선보이고 있다.



◇ ‘금동보살좌상’



◇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간 충북 증원 미륵리사지.

공사지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순천대 박물관(관장 조원래교수)이 1, 2차로 나뉘어 발굴할 율동사지는 지난 3월 부도터 발굴조사에서 도선국사와 통진대사의 쌍비쌍탑자리 및 석굴내 유물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 발굴은 사지 전역을 대상으로 사찰의 창건

시기와 규모, 용도, 모습 등을 찾는 데 역점을 두게 된다.

인천광역시도 16억여원을 들여 팔만대장경의 판각성지로 알려진 선원사지(사적 259호)에 대한 재발굴을 실시, 1차발굴의 미비점을 보완해 2002년까지 민족문화의 성지로 복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석>

## 불심시집 (91)

### 마음은 달에 맞아 맑다

- 글이나 글씨 모두 뛰어난 (문필양겸승)
- 힘쓰는 공부 심히 정결하다 (做工甚潔精)
- 의지는 높아 향산처럼 빼어나고 (志高香岳秀)
- 마음은 달 물결에 닿아 맑다 (心契月波清)
- 도의 모습 못 사람에게 뛰어나 회고 (道態超人白)
- 시의 정서는 사물을 벗어나 맑다 (詩情出類明)
- 천년의 쓸쓸한 절에서 (千年蕭寺上)
- 낭랑한 읊음, 바로 부처님의 소리 (朗詠眞佛聲)

이 시는 월파(月波·1659~?)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태율(兌律)이고 월파는 호이다. 위의 시는 ‘원혜 스님에게 준다(贈圓慧師)’는 시이다. 상대방에게 주는 시기에 그 내용은 바는 이의 인격에 맞는 서술이었지만, 시어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자자인 월파대사의 평소의 소신인 듯도 하다. 원혜스님의 뛰어난 시문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의 도태(道態)나 시정(詩情)을 찬미하였지만, 이러한 자체 자체가 작자의 평소 소신이다.

어떤 대상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회를 서술할 수 있는 것이 역시 글을 쓰는 이의 일상적 자세일 것이다. 이 시도 이런 점을 연면서 은연 중에 자신의 시정이 도태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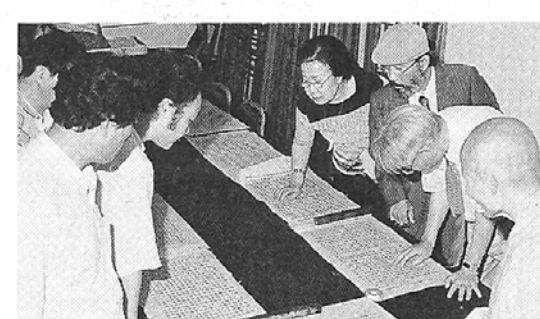
정진에 힘쓰는 원혜의 지조가 묘향산처럼 뛰어나며, 그 마음은 달빛에 비친 물결만큼

이나 아름답다. 여기에 인용된 달 물결이 바로 스님이 자신의 호로 삼은 월파이니 이것이 바로 대사의 평상적 표현이다. 이 점이 원혜를 기리면서 자신의 평상심을 시어로 삼아 보는 자세였다 하겠다.

다음 구의 도태나 시정의 대구도 재미있다. 자연 진리인 도에는 모습이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모습(態)으로, 자연 진리의 표현인 시에는 성정의 한 갈래인 정서(情)로 표현한 대사의 시어 선택에서도, 그의 시는 진리의 참 모습인 도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도태에서 우려난 시기에 이 시의 읊음이 바로 부처님의 소리이었다. 월파대사의 이 시가 어찌하면 모든 스님들이 시를 사랑하는 이유를 한 말로 대변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자연의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소리이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스님들의 시임을 강명하게 표현하였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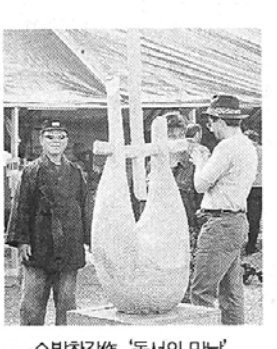


◇ 제1회 불교사경대회 출품작들을 심사하고 있는 동방연서회 김용현 이사장 등 심사위원들.

## 김경호씨 대상 ‘영예’ 동방연서회 사경대회

(재)동방연서회(이사장 김용현)가 주최해 6월 20일 서울 충정사에서 열린 제1회 불교사경대회에서 김경호씨(연희서실 대표)가 대상을 차지했다.

서예가 김용현 선주선 여원구씨등 서예가와 예선을 거친 일반인 등 총 53명이 참가한 이번 사경대회에서 금상은 이태동씨, 은상에 한태석 이정호씨 등 총 14명이 입상했다. 동방연서회는 4~6일 문헌공미술관에서 입상작 전시회와 시상식을 갖는다. (02)733-0131



◇ 박찬갑씨 '동서의 만남'

## 국제 목조각심포지엄 박찬갑씨 작품 ‘호평’

조각가 박찬갑씨가 6월7~15일까지 덴마크 호요시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목조각 심포지엄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영국 등 14개국 작가 20명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박씨는 중앙 삼재(천지인)사상을 기본으로 한 남과 북, 동과 서의 만남과 화합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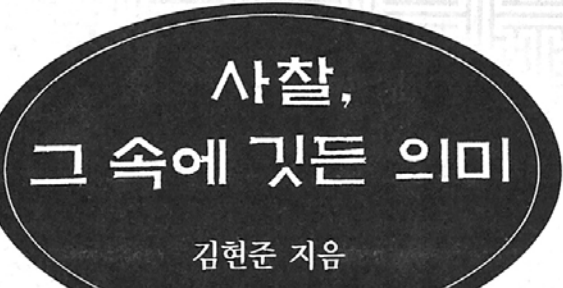
◇ 창작판소리 '사명대사'를 공연하고 있는 이용배가사(왼쪽).

## 이용배씨 판소리 '사명대사' 1천여명 관람 '감동합장'

용담 이용배가사(70)의 창작판소리 '사명대사' 발표회가 6월 21일 동송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1천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성료됐다. 임진왜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의병장 사명스님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승과급제, 개오, 의병활동, 열반 등 일대기를 구성한 판소리에 담은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절절한 감동을 안겨주며 문화유산의 해인 율해를 한층 빛낸 값진 공연이라는 평을 얻었다.

이용배가사는 오는 8월 캐나다 불교계의 초청으로 판소리 '사명대사'를 공연한다.

##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김현준(金鉉埜)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필간 <법공양> 발행인

-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매거진> 동량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엠버서더호텔 옆)
-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이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인법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8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지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지화상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한국판 / 220면 / 값 4,300원